



VALUE INVEST KOREA

2017년 06월 첫째주



헤드플레이



아스타



딜라이트



와이랩



블루사이드



문정아 중국어



영화 '노무현입니다' 100만 돌파

- 영화 '노무현입니다'는 개봉 열흘 만인 3일 오후 3시 관객 100만 명을 돌파
→ 다규 영화 사상 최단기간 100만 돌파 기록

※ 다규 영화 최다 관객 동원작인 '님아, 그 강을 건너지 마오'는 개봉 18일 만에 100만 명을 돌파

- '캐리비안의 해적', '원더우먼' 등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와의 경쟁 속에서 얻은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

- 개봉 첫날 580개 스크린에서 상영을 시작 개봉 3일째 스크린이 775개까지 늘어났으며 지난 2일에도 598개 유지

- 흥행 비결에 대해 정치인 노무현이 아닌 '인간 노무현'이라는 콘텐츠의 힘



중국 오토바이오 그룹에 말디플레이트 공급

- 말디 플레이트와 플레이트 홀더를 해외영업 대리점을 통해 중국 오토바이오 그룹(Autobio Group)으로 공급한다고 공시
- 계약 금액은 3999만원으로 지난해 매출액 대비 16.69%에 해당하는 규모
- 2006년 설립한 아스타는 말디토프(MALDI-TOF) 질량분석기를 이용한 미생물 검사 및 질병 진단 토탈 솔루션인 아이디시스(IDSys)를 제공 아스타는 지난 2014년 국내 최초이자 세계에서 3번째로 미생물 동정(확인 및 검사)용 말디토프 질량분석기 시스템인 마이크로아이디시스(MicroIDSys)를 개발했다.



딜라이트보청기 창립 7주년 기념 ‘디세븐(D-Seven)’ 출시

- 신제품 ‘디세븐(D-Seven), 디클래식(D-Classic)’의 출시는 지난해 해외 진출 성공 후 처음 맞는 창립 기념일에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며 기획
- 업그레이드된 성능에 7년 전 가격을 그대로 적용
- 700대 한정 판매 제품으로, 소진시까지만 판매될 예정
- 디세븐(D-Seven)은 딜라이트보청기의 지속적인 연구와 독일 한사톤(Hansaton)의 기술력이 만나 재 탄생한 제품
 - 바람 소리 감지, 전 방향성 모드, 배경 잡음 제거 등의 기능으로 어음 명료도가 확대돼 노인성 난청에 적합
- 딜라이트보청기는 청력이 떨어지지만 비싼 가격 때문에 보청기 사용을 주저하거나 포기하는 이들을 위해 표준화된 보청기를 합리적 가격에 공급하고 있음
- 딜라이트보청기는 국내에서 4채널, 8채널 제품의 키트(보청기 주요 모듈)를 자체 연구·개발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았고 12채널, 16채널의 고사양 제품 개발도 완료한 상태
- 베트남 현지법인을 설립해 동남아시아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하고 있음



‘지질의 역사’ 공감 200%의 대학로 청춘 뮤지컬 탄생

- 김풍, 심윤수 작가의 인기 웹툰을 원작으로 개막 전부터 주목 받아온 뮤지컬 <지질의 역사>가 프리뷰 공연을 성황리에 마침
- 웹툰 ‘지질의 역사’의 시즌 1부터 3까지의 스토리를 재구성, 풍성한 스토리와 웹툰에서 막 튀어나온 듯한 완벽한 싱크로율의 배우들과 세련된 무대로 대학로에서 보기 드문 웰메이드 창작 뮤지컬의 탄생을 예고
- 대학로 신고식을 성공적으로 치른 청춘 뮤지컬 <지질의 역사>는 8월 27일까지 대학로 DCF 대명문화공장 수현재씨어터에서 공연될 예정



블루사이드, 삼본정밀전자 인수금 지급 연기

- 삼본정밀전자는 5일 공시를 통해 최대주주가 블루사이드로 변경되는 시점이 6월 5일에서 8월 31일로 변경됐다고 공시
→ 삼본정밀전자를 인수하기로 한 블루사이드 측이 잔금(721억 7,704만원) 지급일을 8월 말로 연기했기 때문
- 당초 블루사이드는 지난 2월 27일 계약금 57억원을 지급하며 삼본정밀전자 지분 55.47%를 총 843억 2,000만원에 인수하기로 계약
- 블루사이드는 지난 3월 열린 IR 행사에서 삼본정밀전자 인수에 필요한 자금 843억원 가운데 600억원은 블루사이드가, 별도 재무적 투자자에게 243억원을 조달
→ 150억원은 미래에셋대우에서 차입, 나머지는 대부분 전환사채(CB)를 통한 투자



중국어 교육 1위 '문정아중국어' 매각 추진

- 중국어 교육 1위 업체 '문정아중국어'가 경영권 매각을 추진
- 4일 투자은행(IB)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매각주간사 KPMG삼정회계법인은 '문정아중국어연구소'의 경영권을 포함한 과반수 지분을 매각하는 내용의 투자설명서(IM)를 국내외 사모펀드와 사교육업체에 발송
→ 삼정회계법인은 이달에 인수 의사를 밝힌 업체들 중 쏫리스트(예비후보)를 발표하고 예비실사를 진행할 계획
- 이후 최종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 중 우선협상인수대상자를 선정, 올해 상반기에 주식매매본계약(SPA)을 체결한다는 계획
- 현재 문정아중국어 최대주주는 지분 49.4%를 보유한 문정아 문정아중국어 연구소장이고, 서연태 문정아중국어 대표이사과 밸류인베스트코리아가 각각 25.6%, 25.0%의 지분 보유
- 대주주의 차익실현 및 신규 투자를 위한 자금유치가 이번 경영권 매각의 배경으로 보임
- 2013년 매출액 11억원에 불과했던 문정아중국어는 이후 급속한 성장을 거듭해 지난해에는 매출액이 112억원을 넘어서면서 단 4년 만에 900%가 넘는 신장세를 보임

'문정아중국어'가 경영권 매각을 추진한다는 언론기사 내용은 일부 오보가 있어 아래와 같이 알립니다.

1. T사, M사, K사 등 전략적인 투자를 원하고 있는 기관들과 저희 회사 VIK는 '시너지를 낼 수 있다면'이라는 조건하에서 협상을 진행중임.
2. 신문기사에서 창업자들이 모든 주식을 처분하고 수익실현을 하겠다는 것처럼 쓰여진 것은 사실과 다른
현재까지 전략적인 투자자들과의 협상이 진행중이고, 아직 공개할 정도로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.